

코트라, 우즈벡 의료전시회 참가 우리기술 활용한 메디컬 협력 확대

한-우즈벡 경제협력 후속 파트너십 우즈벡 의료전시회 연계 상담 운영 박람회서 총 8건 계약·MOU 체결

정부가 우즈베키스탄의 의료바이오 수요 확대와 그에 따른 정책에 대응해 양국 'K-메디컬' 협력을 적극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지난 15~17일까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한-우즈벡 경제협력 후속 파트너십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 양국 간 경제외교 후속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 의료바이오 분야 기업 15개사와 현지 바이어 87개사가 참여해 전시 홍보관, 수출 상담회 등을 운영했다.

행사는 우즈벡 최대 의료 전시회인 '2025 타슈켄트 국제 의료박람회(TIHE 2025)'와 연계해 열렸으며, 한국 홍보관을 통해 다양한 'K-메디컬' 제품을 전시하고, 사전 주선된 현지 유력 바이어 87개사와 152건의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는 지난 15~17일까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한-우즈벡 경제협력 후속사절단'을 파견했다. 사진은 '2025년 타슈켄트 국제 의료박람회' 전시장 내 마련된 한국 전시홍보관 모습. /코트라

CT 튜브를 생산하는 A사는 유지비용 절감 효과를 내세워 현지 진단장비 수입기업의 관심을 끌었고, 수도 필터를 제조·수출하는 B사는 수질관리 현안에 대응하는 제품으로 다양한 인과이어리(거래제안)를 유도했다.

이번 후속상담회를 통해 총 8건의 계약과 협력 MOU가 현장에서 체결됐다. 특히 지난해 경제외교 행사에 참여한 6개사 중 2개사는 이번에 계약 1건, MOU 1건씩 체결했다.

우즈벡 정부의 제약산업 확대 정책

에 따라 양국 의료 기술과 시스템 분야에서 양국 병원과 기업 간 협력이 활발히 확대되고 있다.

이지형 코트라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우즈벡의 의료바이오 수요 확대와 정부 정책은 우리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협력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책 흐름에 맞춰 'K-메디컬'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합격·취업률 등 국가기술자격 정보 '한눈에'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 자료 공개
중대재해처벌법 후 산업안전기사 증가

고용노동부가 각종 기사, 산업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취업 등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일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원페이지 분석 종합 정보'를 큐넷(Q-net, www.q-net.or.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한 자료에는 국가기술자격별 응시인원 추이, 응시자 및 취득자의 성별·연령·학력·응시목적·경제활동상태 등 통계와 재직자 비율, 취업률 등이 담겼다.

국가기술자격별 종합 정보를 한눈에 파악해 그 특성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2년 1월 27일)에 따라 산업안전기사 자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기사는 최근 6년간(2017~2023년) 취득자가 꾸준히 늘어 3.6배 증가했고, 필기 합격률은 51.1%, 실기 합격률은 54.3%로 전체 평균(필기 44.1%, 실기 43.25%)보다 높아졌다.

응시자는 남성(84.3%)이 주로 응시했고, 연령은 20대(40.6%)가 가장 많았다. 학력은 대학교(65.5%), 응시목적은 취업(29.4%)이 가장 높았다.

특히 산업안전기사는 취득일 당시 재직 비율이 71.4%로 높았고, 미취업 상태에서 1년 이내 취업한 사람은 65.4%로, 1년 이내 평균 취업률(47.5%)보다 높았다.

임영미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취업, 창업 및 경력개발 등 자신에게 맞는 국가기술자격을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필요한 양질의 국가기술자격 정보 제공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수산물 불법수입 단속 광역수사팀 출범

불법 수입으로 폐기 농축산물 증가
디지털포렌식센터 신설 등 단속 강화

농축산물의 불법 수입·유통을 단속하기 위한 '광역수사팀'이 출범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사 전담 특별사법경찰을 배치하고 및 과학수사를 위한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신설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광역수사팀(전담 수사조직)은 검역을 거치지 않은 농축산물 불법 수입 등 위법 행위 증가와 조직·지능화된 범죄에 대응한다. 18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사업무를 시작했다.

지난해 공항·항만 등 국경 지역에서 우편·타송·휴대로 불법 수입하다 적발돼 폐기된 농축산물은 21만 300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 수입 시 검역 미신고 등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은 1878건, 불법 수입 혐의 등으로 적발한 수사 실적은 64건에 이른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법 수입된 농축산물이 거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범죄 관련 은어·약어 사용 등 행태가 더욱 은밀해지고 있어 적발 및 혐의 입증에 위한 디지털포렌식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검역본부는 설명했다. 디지털포렌식은 디지털 데이터 및 통화, 이메일 기록 등을 수집·분석해 범행 증거를 확보하는 수사기법을 뜻한다.

이번에 발족된 광역수사팀은 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에 자리해 있다. 일선 특별사법경찰 중 일부 인원을 전담수사관으로 선발해 운영한다. 우선 중부권역(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전담해 수사할 계획이며 향후 수사 범위를 남부권역(영남, 호남, 제주)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그간 관련 기관에 의뢰해 온 디지털포렌식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게 돼, 증거분석 능력까지 확보하게 됐다.

/세종=김연세 기자

공정위, '거짓 광고' 명품 플랫폼에 과징금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 광고 적발
거짓·과장 광고, 필수정보 누락 등

고가의 유명 상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가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행위를 하다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1200만원), 과징금(1600만원) 등 제재를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2021년 1월 ~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해 할인 행사를

를 진행함에도, '단 O일만 진행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 문구를 사용해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

또 트렌비와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할인 판매 상품이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우 등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청약철회를 제한하거나, 상품 하자나 오배송 등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도 7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처럼 안내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이 경우 청약철회 기간을 3개월(해당 사실을 알 날로부터 30일)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트렌비와 발란은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품목별로 제공해야 하는 필수항목의 정보 중 일부 정보를 누락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국내·외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플랫폼 업체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구매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사업대상자 2곳 선정

해수부, 노후 연안여객선 신조 지원

해양수산부가 2025년 제1차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사업대상자에 고려고속해운 등 2개 연안해운선사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해수부는 노후 연안여객선의 신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현대

화 펀드를 운영해 왔다.

현대화 펀드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세계로선박금융은 지난달 10~28일 기간에 현대화 펀드 제1차 지원대상자를 공모했고 총 2개 선사가 지원했다. 이후 이달 17일 펀드 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고려고속해운, 금오해운 등 2개 업체를 지원대상자로 지정했다.

특히, 고려고속해운은 인천-백령항로에 대형여객선을 도입하기 위해 현대화펀드 지원을 신청했다. 동 항로를 운항하던 유일한 2000톤(t)급 이상 카페리선인 하모니플라워호(가경영남)로 운항을 중단했었는데 이번 현대화펀드 지원으로 2000t급 이상의 새로운 여객선이 다시 운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지역주민의 숙원이었던 해상교통 정상화와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해수부는 보고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49 | 해질 / 19:13

4월 21일 (월)
음력 : 3월 24일

수도권 날씨
14 ~ 26°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JCPOA의 교훈?...이란, '美 협정 파기 방지 보장안' 원해 /사진 뉴시스

▲“진짜야?” 미, 노숙인이 복권 금은 순간...14억 당첨에 매장 '들썩'

▲트럼프, 일에 '적자 제로' 요구...이시바 “먹거리 안전 양보 못 해”

▲“北자주포 우크라이나 450km 러시아 영토 배치” 요미우리

▲日 야생 곰 점점 늘어...긴급사냥 허용 등 대응 방안 강화

▲“속박로 왜 이렇게 비쌌나 했더니...” 日고급 호텔들, 담합 청탁 포착